



두 페이지씩 보기위한
빈 페이지 입니다.

본문이 다음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NCCK에게 묻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질의에 대한 NCCK의 답변

NCCK 제공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의 기본 정신은 무엇인가요?
본회가 추구하는 기본 정신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성서에서 가르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이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연합과 일치 추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NCCK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한국교회들이 연합하여 전도와 친교, 봉사, 연구, 협의, 협력, 훈련 등 공동의 선교적 사명을 수행합니다(헌장 3조).

이런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NCCK는 어떤 특정한 교리나 법규, 교회의 조직 형태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교회들이 간직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경험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교회 연합과 일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NCCK가 1924년에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로 창립될 때 출발부터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그 당시 현장을 보면 “조선예수교공의회는 여러 협력 사업을 추구하지만, 신조와 교회 정책, 그리고 예배 형태 등과 같은 질문을 다루는 권위를 갖지 않으며, 더불어 협력하는 단체들에 대한 결정을 강요하는 권위를 갖지 않는

* 이 글은 최근 교단이 복귀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질의했던 것에 대해 NCCK가 답변한 내용이다. - 편집자주

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또 해방 후 대한기독교연합회로 이어져 지금에 이르기까지 NCCK에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본회 회원교단들의 신학과 신앙, 교회 직제 형태와 믿음의 전통에는 서로 다른 면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개신교회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치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NCCK는 ‘교회협의회’ 형태의 일치운동을 벌이면서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서로 준수하고 있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NCCK 회원교단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회원교단의 교리와 입장, 활동을 모두 진리로 인정하거나 수긍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합기관에서 일치를 위해 활동을 합니다.

둘째, NCCK 회원이 된다고 해서 교회협의회가 취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성명서와 행동을 반드시 그대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회원교회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른 행동의 자율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회원교단들이 서로 다른 신앙 체험과 직제를 나눔으로 전체 회원교회들이 복음의 진리에 더 밝히 다가가고, 은혜에서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2. NCCK의 신학적인 입장은 무엇인가요?

NCCK는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구세군대한본영,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한국정교회가 회원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교단들의 신학적인 스펙트럼은 폭이 무척 넓고, 그 입장은 무척 다양합니다. 본회는 이런 서로 다른 교회들이 모여 일치와 연합, 선교와 봉사, 사회적인 책임과 해외교회와 협력을 하는 연합기관이기 때문에 NCCK 자체는 공식적인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회는 세계 각국에 조직되어 있는 여러 NCC들과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보면 신학 성향은 ‘에큐메니컬’ 입장입니다. 그 내용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회는 교회의 본질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된 현실에서 일치와 연합운동을 꾸준하게 전개하여 현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됨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현장에서 본회의 목적을 “교회 일치와 연합 정신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헌장 5조)로 규정한 것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열린 일치기도회



둘째, 본회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며,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늘의 현실에서 선교하고, 사역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는 그 신앙과 선교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에

입각하여 본회는 현장의 전문에 “우리는 한국교회연합 운동이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길목에서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 건설의 기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이의 인권과 생존권이 보장되며, 자유와 정의가 구현되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사회 복지와 봉사 사업에도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NCK와 WCC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NCK는 WCC의 회원이 아닙니다. 즉 NCK가 WCC에 총대를 파송하거나 회비를 내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WCC의 파트너 자격으로 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회원교단 중 WCC 회원교단은 예수교장로회(통합), 감리교, 기독교장로회, 성공회입니다. 구세군, 복음교회, 기하성, 한국정교회는 본회의 회원교단이지만 WCC 회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회는 ‘선교와 전도’, ‘신앙과 직제’, ‘삶과 봉사’의 영역에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지향하면서 선교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는 전통을 계승하여 활동하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와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이런 입장을 현장 전문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함께 나누는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기독교협의회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협의회와 연대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4. NCK의 선교적 입장은 어떠한지요?

본회는 교회들간의 협의기구로 전도 활동이나 국내외 선교 사업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회원교단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본회의 현장 전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과 선교적 과제를 다하기 위하여 모든 교회가 참여하고, 협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대화와 협력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활동과 관련해서 본회가 유의하는 기준은 ‘교회가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어떻게 해야 함께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나? 교회가 그 사회와 그 시대가 나가야 할 지표를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제시할 수 있나?’입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 이후 우리 교회가 해외선교를 할 경우에는 ‘현지 문화의 존중, 현지 종교의 이해, 현지에 교회가 있는 경우에 현지 교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5. 제3세계국가와 사회적 측면에서 NCK가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지요?

본회는 제3세계 국가를 포함해서 해외 다른 나라에서도 NCK 이름으로 직접 활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나라의 NCK를 비롯해서 현지 교회가 직접 전도와 선교, 봉사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고,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과거 공산주의 시절의 구소련에 성경을 보내고 보급하는 일을 현지의 러시아정교회와 함께 진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지난 해 미얀마에서 홍수 피해가 났을 때 본회에서 현금을 모금하여 미얀마 NCK를 비롯해서 현지 교회가 직접 복구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한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본회는 또한 회원교단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선교활동을 하는 데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움을 겪는 제3세계와 현지 주민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전하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NCCK의 한기총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지요?

NCCK는 1924년 창립된 이래 지난 85년 동안 한국교회 일치를 위한 연합 기관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한기총이 20년 전에 등장한 이후 한기총의 성격에 대해서 본회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1989년 이래 한국교회 연합기구가 NCCK와 한기총으로 나뉘어 있지만 이것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과 일치 노력을 상호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에서 2003년 본회의 교회일치위원회는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한기총과 통합을 위한 논의를 1년 이상 진행했지만 조직적인 합동은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이에 조직 합동 논의는 중단하고, 200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부활절연합예배를 공동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일치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원에서 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일치를 위하여 공교회 연합기구로서 본회는 한기총과 '사안별 협력, 사업 단위별 협력, 각 위원회 단위의 대화와 공동 사업 진행, 하나의 연합기구로 통합'이라는 과정을 거쳐 협력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NCCK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NCCK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교분리라고 하는 헌법의 원칙에도 부합됩니다. 그러나 국가와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예언자의 자리에 서야 하고,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 보존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회가 사회적인 문제에 발언하고,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 성결교회와 NCCK의 관계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평가해 주신다면?

일제 말기 일제에 의해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가 강제 해산된 후 해방 후 1946년 NCCK가 한국기독교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재조직될 때 성결교는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및 국내의 각 선교부와 기독교 기관들로 이루어진 재창

립 회원교단이었습니다. 제3회기 회장인 박현명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결교 지도자들이 1962년까지 NCCK와 한국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장감성(長監聖)'이라는 호칭도 이때 등장했습니다.

장감성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를 줄인 단어로 한국교회의 중심교단을 통칭하는 호칭입니다. 특별히 장로교와 감리교가 큰 교단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운동에서 성결교회는 언제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해방 후 재조직될 때 장감성의 한 교단인 성결교회가 회원교단이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국교회와 연합운동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9. NCCK에 복귀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성결교회의 역할과 감당해야 하는 의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NCCK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 세계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역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앞으로 일치운동의 지향점은 지역적(local) 교회이면서 동시에 세계적(global)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Glocal Church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NCCK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006년 제55회 총회에서 NCCK 현장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들과 또 세계교회들과 더 폭넓게 협력해 나가고, 또 더 깊이 공동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성결교회는 한국교회사에서 지난 100년 넘게 중생(重生)·성결(聖潔)·신유(神癒)·재림(再臨)의 사중복음

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성결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 세계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려는 노력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방향을 정립해 나가려고 하는 NCCK로서는 이와 같은 성결교회의 열정과 경험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성결교회의 신앙 체험이 NCCK 중심의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성결교회가 NCCK에 복귀하고 한국교회 일치운동에 다시 주역이 되면 한국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NCCK 가입으로 성결교회는 지난 85년 동안의 NCCK 전통 및 NCCK와 협력과 존중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 교회와 유대를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NCCK 회원교단이 되면 그 의무는 매년 NCCK 총회와 실행위원회에 대표를 파송하고, 교세 보고를 해야 하며, 신앙과직제위원회를 비롯해서 12개 위원회에 각각 위원을 파송해야 합니다(현장 9조, 현장세칙 21조). 또한 매년 분기별로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회비 액수는 교단의 교회수, 교인수 등을 감안하여 회원교단 총무회의에서 제안하고 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현장세칙 21조). 예를 들면 2009년의 경우는 예상 9,954만 원, 감리교 8,600만 원, 기장 4,736만 원, 구세군 2,006만 원, 기하성 4,736만 원입니다.

10. NCCK의 부채와 그 상황 계획은 어떠한지요?

본회는 일반회계 재정에는 부채가 없습니다. 다만 본회 신설기관인 선교훈련원 사무실과 소예배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 3월 말로 긴급하게 기독교회관 사무실 69㎡를 구입하였습니다. 긴급 구입이어서 1억 3천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재정 잉여금으로 2년 내에 충분히 상환할 수 있습니다. **삼**